

잇단 기업 유치...광양 '제1 경제도시' 청신호

민선 6기 1년간 39개사
3011명 고용창출 성과
우수기업과 연이어 협약
154개 유치 목표 탄력

'전남 제1의 경제도시'를 표방하는 광양시가 민선 6기 목표로 내세운 '154개 기업 유치' 정책이 탄력을 받고 있다. 특히 기술력과 자금력 등 내실 있는 우수 기업들과 연이어 유치 협약을 체결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청신호가 켜지고 있다.

26일 광양시에 따르면 민선 6기 1년 동안 39개 기업을 유치해 3011명의 고용 창출 성과를 냈다.

시는 지난 5월부터 6월 초까지 광양항 배후단지 입주업체 신청을 받은 뒤 심사과정을 거쳐 5개 업체를 선정하고, 지난 8월 입주업체 승인절차를 마무리했다.

이후 광양시는 광양항 컨테이너부두 동측배후단지 입주업체 우선 협상 대상자 5개 업체와 투자 협약을 체결하고 입주를 지원했다.

입주업체는 ▲순송중공업과 기계금속 제조업체인 남해물류(주) ▲특수 소형선박 및 레저보트 제조업체인 ㈜다오트 ▲비료, 분질 유통회사인 ㈜아이센스타 ▲전국버섯 재배 수입원료 유통회사인 ㈜은누리버섯 ▲LED 제조 및 유통회사인 ㈜꿈코로지스 등이다.

당시 투자협약을 체결한 동측 배후단지는 총 7만3402.8㎡로 고용유발 효과 460명, 신규투자 260억원, 연간 6만TEU 정도의 물동량 창출이 예상되는 기업들이다. 정현복 광양시장은 취임 후 POSCO와



정현복(왼쪽) 광양시장과 서경식 광양시의회 의장, 우기중 전남부지사, 선원보 여수광양항만공사 사장 등이 지난 24일 광양항 배후단지에서 열린 (주)EEW-KHPC 광양공장 준공식 후 공장내부를 둘러 보고 있다.

연도급간판 제조시설 투자 유치를 이어 광양항 배후단지 내에 제조와 물류 기능을 갖춘 기업들을 유치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광양시가 지난 6월 유치한 기업들도 입주허가 절차를 완료하고 현재 공장시설 공사에 한창이며 내년 초 가동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24일 동측배후단지에 광양공장을 준공한 (주)EEW-KHPC 사는 7만 24㎡(2만1200평)부지에 사업비 400여 원을 투자해 건축면적 1만8208㎡(5518평) 규모로 공장을 신축하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

(주)EEW-KHPC는 성호아파트 26가구를 임대해 직원 숙소로 활용하는 한편 내년 초에는 150여 명의 신규직원도 채용할 예정이다. (주)EEW-KHPC는 후판을 말아 파이프를 만드는 대규모 후속형 투자분야의 세계적 기업인 독일 EEW사와 국내 투자자와의 합작회사로, 광양제철소 후판을 활용해 배관용과 구조용 파이프를 생산하게 된다. 생산품은 엑스모빌과 웨브론, 텍스코 헬 등 풍력발전과 석유플랜트 회사에 전량 수출할 계획이다.

광양시는 그동안 배후단지 입주업체로 선정된 후 입주를 포기한 약소원을 방지하

고 고용창출과 물동량 증대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도록 제조와 물류 기능을 갖춘 업체 유치를 집중해 왔다.

이를 위해 잠재 입주업체와 꾸준한 상담 및 방문을 진행해 오는 한편 맞춤형 투자유치 활동으로 기업의 입맛에 맞는 유치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정현복 광양시장은 "광양에 투자한 업체들이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며 "입주기업들은 지역민 고용 창출과 인적자원들이 광양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토석 마구잡이 채취 예방 총량관리제 도입

광양시가 관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토석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총량관리제를 도입한다.

26일 광양시에 따르면 최근 신태욱 부시장과 팀장급 10명 등이 모여 토석의 효율적 관리 방안을 모색하는 관련 부서 협의회를 했다.

광양시는 대규모 개발 사업 등으로 토석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토석과 관련한 채취장 확보 및 사도·순성도 등을 사전 파악해 적기에 필요한 사업장 등에 투입하는 등 산지의 난개발을 예방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시는 현장에서 토석이 반출되는 시기와 토석 종류별로 데이터화하고, 결과

물을 모든 부처와 공유해 유기적 협조 체계를 구축하는 등 총량관리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시는 또 토취장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공사 차질이 우려되고 있는 세곡산단에 대한 대책 방안도 구상 중이다.

세곡산단은 30㎢(91만평) 규모로 전체 710만㎡의 토사 중 내년까지 122만㎡가 필요하지만 매립도 확보가 일정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축림지역의 토석 채취장과 광양을 민간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토석을 세곡산단에 공급하는 방안 등을 시공사 측에 제시한 상태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유럽서 호평 어린이음악극 '봉장취' 광양 공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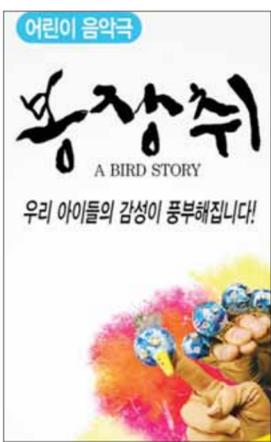
다음달 3·4일 문예회관

국내외 물론 덴마크, 러시아 등 유럽 무대에서도 호평을 얻은 어린이 음악극 '봉장취'가 내달 3일부터 4일까지 광양문화예술회관 무대에 오른다.

광양문화예술회관은 26일 "어린이들에게 미래를 향한 창의력을 키워주고, 문화를 매개체로 행복을 선물하기 위해 어린이 음악극 '봉장취' 공연을 기획했다"고 밝혔다.

음악극은 내달 3일 오전 11시와 오후 7시30분, 4일 오전 11시 등 모두 3차례 공연된다. 단 오전 공연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아이들을 대상으로 단체 관람이 이뤄지며, 오후 공연은 일반 시민이 가족 단위로 관람할 수 있다.

전통음악의 한 갈래로 남아 있는 '봉장취'는 조선 후기 세에 관한 재담을 음악과 함께 들려주는 악극으로, 이번 작품은 전통 악극을 토대로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창작한 것이 특징이다. 공연은 빠꾸기와 넓적부리랑새 이야기를 주제로 한 재담과 신명나는 전통 음악, 재미난 소품, 재기 발랄한 배우들의 연기력이 더해져 어린



이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지정좌석제로 운영하는 이번 어린이 음악극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광양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http://www.gwangyang.go.kr/art)를 방문하거나 문예회관팀(061-797-3602, 2529)으로 문의하면 된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광양시 '장수노인 수당' 내년부터 전면 폐지

정부 권고따라 미지급 결정
노인복지 예산으로 재투자

광양시가 8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해온 '장수노인수당'을 전면 폐지한다.

광양시는 26일 "내년부터 8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던 '장수노인수당'을 폐지되고, 노인복지서비스 예산으로 재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2006년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광양시 장수노인수당 지급 조례'를 제정하고, 만 85세 이상 노인에게 월

3만원의 장수수당을 지급해 왔다.

또 지난 2014년 11월 조례 개정을 통해 2015년부터 월 4만원씩 총 8억여원을 지급했으며, 2016년에는 월 5만원씩 14억여원, 2017년에는 월 6만원씩 총 14억여원의 장수수당을 확대 지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최근 정부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일정 연령대 이상의 노인에게 정기적인 급여를 지급하는 노인수당을 폐지할 것을 권고함에 따라 폐지를 결정하게 됐다"는 게 광양시의 설명이다.

현재 전남도내 22개 시·군 중 18개 시군에서 장수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정부의

폐지 권고에 따라 고령군을 시작으로 모든 시·군에서 폐지를 추진 중이다.

광양시도 '장수노인수당 지급 조례 폐지안'을 지난달 28일 입법예고하는 한편 12월 광양시의회 정례회에 조례 폐지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김정중 광양시 사회복지과장은 "정부 방침을 어길 경우 페널티에 따라 연간 20여억원의 정부예산이 삭감될 수 있다"면서 "장수노인수당 폐지로 절감된 재원은 '노인복지지원센터'를 건립 등 노인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서비스 예산으로 재투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 지원

광양시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나선다.

광양시는 26일 "국가에서 지원하는 시술비 기준을 다 이용하고도 임신에 성공하지 못한 난임 부부에게 1회 시술비를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광양시는 '아이 양육하기 좋은도시 조성'을 위해 올해 초 '아이 양육하기 좋은도시 TF팀'을 구성하고 광양시청 내 32개 부서 직원이 모여 다양한 양육 시책을 구상·추진 중에 있다.

시는 난임 부부 1회 시술비인 180만원을 전액 시비로 지원하는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내년에는 지원 금액을 190만원으로 상향 지원할 계획이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음식물자원화시설 악취 저감대책 단계적 추진

광양시는 26일 "음식물자원화시설의 악취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악취 저감대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2013년 한국환경공단 악취기술훈련 결과에 따라 사업비 5억6300만 원을 투입해 퇴비 비가림 시설 설치, 발효실 지붕 교체, 발효실 성능 개선 공사를 올해까지 단계적으로 완료했다.

내년에는 4억3500만원을 추가로 투입해 자원화시설 이중 밀폐시설, 악취 세정식 탈취설비 추가설치, 침출수처리 시설 세정집진시설 증설, 악취 저감 미생물 실증실험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정현권 광양시 자원화팀장은 "단계적인 공정개선으로 악취 민원해소와 생활환경 보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2016학년도 광신대학교 학부 / 대학원 신입생 모집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학부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계열	모집단위	모집인원
인문	신 학 과	19
	국제한국어교원학과	2
사회	사회복지상담학과	3
사범	유아교육과	3
예능	음악 학 과	5
	실용음악학과	5

* 신학과는 군중사관후보생(군중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 국제한국어교원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사회복지상담학과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전형일정

정시모집 • 원서접수 : 2015. 12. 24(목) ~ 30(수) • 전형일 : 2016. 1. 5(화)

대학원

▶특별전형 (신학대학원 지원자로서 신학관련 학과만 해당됨)

대 학 원	과 정	모 집 학 과	모 집 인 원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과(M.Div.)	25

▶전형일정

• 원서접수 : 2015. 11. 23(월) ~ 25(수)
• 전형일 : 2015. 11. 27(금)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입학문의 ▶ 학부 062)605-1114 / 대학원 062) 605-1115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백지사로 36